

자서전

유성복에 대한 것

유성복은 1913년 소련 마리보르스크 수찬구역 크로롱카촌에서 출생하였는데 ^{소련고종족명} 1934년 위로실로브시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4년 동교를 졸업하고 그후 제2로 7년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1936년에 해산시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수명하였다

1937년 조선인 강제이주와 함께 태환이 야가흐스단 크를오르다에 이주하여 1938년도 까지 수명하고 그후 크를오르다 까질린스크구역 농촌 10년제 학교에서 교원으로 1938년-1939년 까지 교원생활 하였으며

또다시 1940년도 신학년도를 밟으면서 전시사범 대학에서 학생을 계속하다가 1942년 2월에 중퇴하여 소련 중앙아시아 따쉬켄트주

스레드네-치르치크 구역 오르도노비끼즈에 꼴호즈에서 부러가르 및 문화일꾼으로 근무하였다 1945년 11월 1일 소련정부의 라전에 의해 군대에 라전되어 원동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Военком 25 армии приморского боевого округа

명령으로 12월 8일부터 조선에 임명하여 함경남도 소련군 정치 경미사령부에서 번역원으로 근무하다가 1948년 12월 소련군의

조선에서의 철거후부터 소련정부의 명령에 의해 평북도 내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50년 5월 2일부터 내무성 검찰처장으로 이동되었는데

6-25 전쟁개시와 함께 남한우 해방지구 내무시영을 지도하다가 1950년 6월 대전주재 지도우가 조직됨과함께 내무성 대전주재

행암자로 남한우 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1950년 10월 인민군

후퇴와함께 최의사령부 검찰국 부국장으로 근무했다 1951년부터 내무성 보안국 부국장으로 와 함남도 내무부장으로 1952년 7월 내무성

제1국장으로 ^{소련군에서} 그후 내무성과 안전성이 함성됨과함께 1952년 11월

조선인민군 정치안전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평양에서 정권기관에서 일해왔던 김영애 동무에게서 양 갔다 1953년 전쟁정전에

되면서 강의 라전에 의하여 1953년 9월부터 평안남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작하였고 1956년부터 조선 대외문화 연락위원회

1958년 2월
부위원장으로 이동되어 근무하다가 1958년 - 1961년 소련으로
출국하여 내각 김영국 부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961년 유르제까지
스칸 라쉬겐트에서 이사하여 공훈사회모장을 받다가 심장마비
로 1965년 5월 10일에 세상을 떠나셨다

훈장으로는 조국의 경회적 남쪽 통일을 노리 못하시니 애석하며 사망한 후

훈장 수여 때에는 아내 = 김영애, 변로모장 받고 있음

딸 = 윤 율리야, 1955년생, 모스크바에 산다

남아들 = 윤 철수, 1957년생, 라쉬겐트 "

장남 아들 = 윤 이훈이, 1959년생, 라쉬겐트 "

손자 손녀 들은 5명이 있습니다.

2000년 5월 10일